

## 불법적 상업 파일 공유(P-to-P): 발신자 동기 탐색<sup>†</sup>

박지혜\* · 장효천\*\* · 임영진\*\*\*

### Peer-To-Peer Illegal Commercial File Sharing: Sender Motivations

#### Abstract

현대 사회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자기표현과 정보 교환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교환의 활동 가운데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 공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영상협회에 따르면 2003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단속 건수 10만 건을 기준으로 할 때,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총 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불법다운로드 시장의 확대로 인해 음반, 영상 등의 관련 산업의 손실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법적 파일공유로 인해 대외적인 국가신인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파일공유가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수신자의 입장의 연구와 달리 법적인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파일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발신자의 동기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 또는 약화시킴으로써 불법적인 상업파일의 공유를 방지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발신자의 동기를 파악하고 이것이 어떤 파일공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두 번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1은 파일 공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유의 동기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발신자의 동기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1의 심층면접 결과로 밝혀진 요인이 실제 파일공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연구 2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법적위험도의 인지수준에 따라 파일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법적위험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에는 파일공유에 따른 잠재적 보상기대에 따라 달라지고, 법적위험을 낮게 인지하는 경우에는 친사회적 행동, 공감, 자기표현 요인이 파일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인 공유행위는 법적인 위험의 지각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처벌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느낄수록 공유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법적인 처벌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법적인 위험을 낮게 인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작권에 대한 고려 수준을 높여 파일공유를 낮추도록 유도하며, 불법적인 파일공유 행위가 자기표현의 수단가 친사회적 행동이 되지 못하는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높게 인식하도록 해야만 한다.

† 이 연구는 장효천의 석사 학위 논문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 I. 서론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서로 주고받는 파일공유(file sharing) 행위를 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48%)가 소프트웨어(software)를 온라인이나 친구를 통해 얻는다고 답했다(이원호 외, 2008). 이런 파일 공유는 메신저를 통한 실시간 교환이나 전문 P-to-P 사이트,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예: 블로그, 미니홈피)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유되는 파일의 유형은 개인 문서뿐만 아니라 사진, 노래, 영화 등의 상업적 가치를 지닌 파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가 공유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저작권을 포함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파일의 공유빈도가 높은 편이다(성연광, 김희정, 2007).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개인 간 파일공유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초기단계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익숙해져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발전으로 유·무료의 경로를 통한 파일공유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료 공유가 더욱 용이해 졌다(최동욱 외, 2008). 인터넷을 통한 파일 공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구입

하는 경우에 비해 적은 비용 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불법적인 개인 간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개인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파일 공유현상은 기업에게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콘텐츠 사업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정품의 사용이 아닌 개인 간의 공유를 통한 불법복제 콘텐츠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산 콘텐츠의 해외진출 또는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 공유로 관련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파일 공유는 P2P, 웹하드, 카페와 동호회, 메신저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불법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mp3 형식의 음악콘텐츠의 유통(55.4%)이 가장 많고 영상콘텐츠(30.2%), 게임콘텐츠(5.2%)가 뒤를 이었다(최동욱 외, 2008).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가 진행했던 국민의식 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은 포털에서 콘텐츠를 내려 받았다고 응답해 온라인 영화·음악·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최동욱 외, 2008). 이와 같은 상업적 파일의 불법공유로 인해 음원 파일의 저작권자, 프로그램 개발자 및 음반 제작자의 수익 기반을 악화시켜 관련 산업의 온라인 유통 시장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Lantagne, 2004; Smith and William,

2004). 한국영상협회에 따르면 2003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단속 건수 10만 건을 기준으로 할 때,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총 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이설영, 2006). 한국영상협회의 온라인 검색 팀의 모니터링 범위를 전체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의 25%라고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피해액은 2003년 1천 200억 원으로 추정된다(이설영, 2006).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다운로드가 단속될 경우 2,816억 원의 추가 시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영화진흥위원회, 2005), 이를 근거로 하면 2005년 다운로드로 인한 영화시장의 손실액은 총 2,816억 원이 된다(이설영, 2006).

또한,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극장 개봉 수입보다 비디오 등 파생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것에 비하면 국내 2차 시장은 오히려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영상물과 음악 파일의 공유가 급증하게 된 것은 최근 대용량 콘텐츠의 업·다운로드가 쉬워지고 파일명을 암호화하고 있어 모니터링이나 추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윤현옥, 2005).

이처럼 상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 파일의 불법적 공유가 관련 산업 분야의 수익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 규제를 통해 상업 파일의 불법적 공유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과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재와 집행은 실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Smith and Rupp, 2004). 예를 들면, 한국에서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었으나 다수 네티즌들은 장기적으로는 불법공유가 줄지 않을 것(86.2%)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에 대해서는 70%가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 소송기간이 길고 많은 비용이 소요돼 억제효과와 실효성에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식으로 쉽게 빨리 구제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윤현옥, 2005).

이와 같은 개인 간 상업 파일의 불법적 공유에 대한 학계와 관련 산업들의 관심과 걱정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행위에 관한 소수의 실증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또한 파일 공유가 이루어지는 관계에서의 심리거리를 탐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불법적 파일 공유가 수신자의 관점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상업적인 파일을 무료로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파일공유의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으나 금전적인 보상 또는 대가를 지불받지 않고 파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발신자의 동기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 파일의 공유 관계에서 금전적 대가 없이 파일을 송신하는 발신자의 관점에서의 행위 동기를 탐색하고 불법적 파일 공유를 발생시키는 근원적인 요인을 체계적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파일공유는 온라인에서 발생한 불법적 상업 파일 전송 및 수신 행위를 의미하며, 메신저, 메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온라인 클럽, 동호회 등 모든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예를 들면 MP3,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공유를 포함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Homans(1961)가 『사회적 행동: 기초형태(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라는 저서를 통해 공식적 이론으로 제기되었는데, 공리주의 고전경제학, 기능주의 인류학, 행동주의 심리학, 갈등이론 등 여러 가지 이론들에서 그 사상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최성재, 1985). 그 후 사회교환이론은 Homans(1961) 자신, Blau(1964), Thibaut and Kelly(1959)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상(reward)을 극대화하고 비용(cost)을 극소화하여 가능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박재홍, 1991, 재인용).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행위자간에 가치 있는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을 주고받는 교환과정으로 설명된다. 또한 상호관계의 양 당사자들은 보상이 계속되는 한 그 관계를 지속하지만, 반대로 교환관계에서 호혜성의 규범(norm of reciprocity)이 깨지면 상호관계는 단절된다(Blau, 1964; Thibaut and Kelly, 1959; Hendricks, 1995).

사회교환이론의 주요 개념으로는 보상(rewards)과 자원(resources), 그리고 비용(costs) 개념 등이 있는데(Boss et al., 1993), 보상과 자원은 사회적 관계에서 교환되는 이익(profit)을 의미한다. 보상은 개인이 교환 관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경험하는 “기쁨, 만족, 충족”으로 정의된다(Thibaut and Kelly, 1959). 보상은 행동의 긍정적 강화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행위자가 어떤 특정행동에 참여하는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보상에 포함된다.

자원은 행위자간의 행동을 통해 교환되는 물질적 또는 상징적인 모든 상품(Foa and Foa, 1974)으로서, 개인이 상대방에게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부여하여 자원을 보유한 사람이 교환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의 권력을 강화시킨다(Boss et al., 1993, 재인용). 이러한 의미에서 자원 개념은 권력자원(power resources) 또는 교환자원(exchange resources)으로 불리기도 한다(최성재, 1985, 재인용).

비용은 개인이 교환관계에서 경험하

는 처벌이나 보상을 놓치는 것 등을 의미하며, 투자비용, 직접적 비용, 기회비용의 세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Blau, 1964). 투자비용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의미하고, 직접적 비용은 실제 교환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원을 말하며, 기회비용은 특정 교환관계에 참여함으로써 인해 다른 교환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교환이론 관점에 의하면 인간 모두가 보상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간주하며 가상의 공간이나 물리적 공간 모두 공유 행위에 상응하는 도움 혹은 보상에 대한 기대를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Borcherding and Filson, 2003). 이러한 보상은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존경, 사랑, 충성, 사회적 인정, 복종 등과 같이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보상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Johes, 1976; 전영철, 정병웅, 1999).

## 2. 대인관계이론

대인관계(interpersonal orientation)라는 개념은 1950년대 이후 심리학의 연구주제로 관심을 받으면서 심리학자들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개념의 정의 또한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Heider(1958)는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타인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심리적 양식이라 하였고, Leary(1957)는 대인관계의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타인과의 명백하고 의식적이며 윤리적이거나 상징적인 것과 관련된 행동이라 하였다.

대인관계이론은 상징적 상호주의, 형태주의 인본주의, 행동주의 관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상징적 상호주의 관점은 대인관계를 사회적 소산으로보고 경험적이고 사회적인 자아에 초점을 두며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가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행태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대인지각에 주목한 Heider의 “형평성 이론(balance theory)”이 대표적이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지각 차이가 대인관계의 양상을 결정짓는 다는 전제하에 개개인이 인간관계의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대인관계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소연희, 2004). 마지막으로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모방행동 및 사회학습이론을 주장하는 Bandura, 대면적 대인관계에 중점을 두고 독자적인 교환이론을 제시한 Homan의 이론이 가장 대표적이다(김순혜, 김정원, 2004).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가상 상호작용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러

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하여 다양한 대인 미디어의 등장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대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과거 면대면이나 편지 혹은 전화에 의존하던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메일, 이동전화, SMS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은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개인에게 관계 형성 혹은 유지를 위한 시간과 비용 절약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매개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한편에서는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관계형성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존 관계 역시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Wellman and Gulia, 1999). 즉 가상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현실세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이 현실세계의 상호작용을 보완·충족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화의 확산으로 점차 사라져갔던 공동체(community)개념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 공동체(virtual community)라는 새로운 형태도 수정·보완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Wellman, 2001).

Rice(1987)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로 인터넷을 활용하였으며,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인터넷을 통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Walther(1996)는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를 통해서도 사회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대인관계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때로는 이렇게 형성된 관계가 대면 관계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이 개인의 제한된 시간을 차지하게 되어 과거보다 면대면 상호작용에 소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개인의 인간관계는 과거보다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Turkle, 1996). 이와 유사하게 Tonn et al.(2001)는 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대인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술사용이 반드시 대인관계에 대한 시간을 잠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한 대인관계 유지가 대면 접촉에 의한 것보다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 Ⅲ. 연구 1

본 연구 1에서는 사회교환이론과 대인관계이론에 기초하여 발신자의 불법적 파일 공유 동기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파일 발신 경험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1. 대상 및 방법

불법적 파일공유의 동기를 탐색하기 위해 정성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정성적 연구방법은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제약으로부터 탈피하여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자의 주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Sherry and Kozinets, 2000). Calder(1977)는 정량적 조사방법은 일상적인 소비자의 행동패턴을 수치화하는 기술적(descriptive) 접근과 학문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scientific) 접근으로 구분하는 한편, 정성적 방법은 개념을 정의하고 증명하기 위한 탐색적 접근(exploratory), 임상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임상적(clinical) 접근, 사회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현상학적(phenomenological) 접근방법으로 분류하였다. 해석적(interpretive) 연구방법은 정성적 연구방법의 하나이며, 총체적 시각과 정성적 자료의 사용, 귀납적 분석, 상황에 의존한 관찰 및 해석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상업 파일을 전송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인터넷으로 통한 파일 공유에 관한 동기 요인을 추출하였다. 면접 기간은 2008년 3월 중 10일간 진행되었으며 면접 시간은 각각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 내용은 보이스 레코더(voice recorder)를 이용하여 녹취하였으며, 녹취한 내용을 스크립트 형태로 전환하여 정성 자료화 하였다.

응답자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20·30대 대학(원)생과 직장인 남성 13명으로 대학생 3명, 대학원생 7명, 직장인 3명으로 구성되었다. 실시 장소는 서울 소재 대학과 해당 직장에서 실시하였다. 반구조화 면접법 방식을 사용하여 면접이 이루어지기 전 총 네 가지(‘파일 공유를 하게 된 동기 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파일들을 전송하며 누구에게 전송합니까?’,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음악이나 드라마, 광고 등을 공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까?’)의 질문 유형을 개발하였다. 단답형 질문을 피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경험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성격이나 분위기에 따라 다른 형태이나 의미가 통하는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좀 더 상세한 응답을 이끌어 내도록 하였다. 심층면접이 끝난 후 응답자들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 2. 결과

심층면접 결과 응답자들은 영화, 음악, 사진 등 다양한 종류의 상업 파일을 공유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가능한 제품/서비스는 모두 공유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응답자들은 파일공유 행위가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맺는 하나의 교류의 수단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과거 자신이 필요하였던 파일의 무료수신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였듯이 자신의 발신행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신이 처했던 어려움과 동일하게 해결될 것을 언급하였다. 한편, 현재 파일 발신을 통해 추후 자신이 필요한 파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래지향적 보상 심리도 표현하였다. 또한 파일공유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명성과 자아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이 많은 파일을 발신하면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사이버 명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공유행위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자기표현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파일공유가 따른 위법행위라는 것을 다소 인지하고 있고, 단속 및 점검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법적인 책임에 대한 두려움도 언급되었다. 이와 같은 파일 공유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시 정리하면 친사회적 성향, 공감, 사이버 명성, 자아표현, 잠재적 보상에 기대, 저작권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다시 세 가지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친사회적 성향, 공감, 잠재적 보상기대는 도움성향 요인으로, 명성, 자아표현은 자아표현 요인으로, 저작권에 대한 고려는 저작권에 대한 고려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표 1> 참조).

<표 1> 심층면접 결과

범주	요인	인터뷰 내용
도움성향	친사회적 성향	<p>... 인터넷상에 있는 많은 이용자 가운데 내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외롭다고 느껴지는데, 내가 파일을 많이 공유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날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요 ... (남, 29세)</p> <p>...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어디서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필요한 파일을 내가 갖고 있고,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 (남, 29세)</p> <p>... 친구가 필요로 하는 파일을 주었다. 그러면 내가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 (남, 29세)</p> <p>... 만약에 친구가 좋아하는 영화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네이트온(NATE ON)을 통해서 친구한테 보내요, 비록 방법이 나쁘지만 공유를 통해 친구와 문화적·감정적 교류가 생겨서 기분이 좋아져요 ... (남, 33세)</p>



도움 성향	공감	<p>... 과거 내경험을 통해 타인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어서 파일을 공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 (남, 29세)</p> <p>...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필요한 자료가 없을 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OOO있는 분 부탁 드려요”하면 공유하죠.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 (남, 29세)</p>
	잠재적 보상 기대	<p>... 나도 도움을 받았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니까 ... (남, 26세)</p> <p>...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공유하는 것이다 ... (남, 32세)</p> <p>... 기대심리, 이것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한 공유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 (남, 29세)</p> <p>... 나도 공짜로 필요한 것 모두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서 갖고 있던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 (남, 33세)</p> <p>... 보상받으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무의식중에 현재 공유에 대한 언젠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 (남, 29세)</p>
자아 표현	명성	<p>... 회원들 간 파일공유를 하는 경우 아는 사람과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과도 하는데 내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소문이 나면 회원들 사이에서 제 위치가 달라져요 ... (남, 29세)</p> <p>... 파일 공유를 통해 “down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은 리플이 많이 생기면 이용자 사이에서 우월해 지는 거죠 ... (남, 37세)</p>
	자아 표현	<p>... 내가 개설한 카페나 블로그에 파일을 올려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통해 받아가게 하는데, 회원가입자 수가 증가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 (남, 37세)</p> <p>... 내가 동호회에서 활동할 때 그 사람들한테 파일을 주면 사람들이 저를 우월하다고 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파일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평판이 좋아져요 ... (남, 29세)</p>
저작권에 대한 고려	저작권에 대한 고려	<p>... 파일공유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화를 유통시키는 것이니까 다운하는 수가 많을수록 내가 경찰한테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 많이 다운로드 하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 (남, 35세)</p> <p>... P-to-P단속이 많으니까, 단속에 걸려서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지요 ... (남, 31세)</p> <p>... 단속이 없을 때는 현재보다 파일공유를 많이 했었지만, 근래는 단속이 강화돼서 잘 못하죠. 그냥 필요할 때만 하는 정도 ... (남, 29세)</p>

### 3. 논의

본 연구에서는 파일공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파일 발신자 또는 제공자의 동기요인을 알아보았다. 심층면접의 결과 도움성향, 보상기대, 법적

고려사항이 발신자로 하여금 파일 제공을 유발하는 행동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파일공유를 발생시키는 발신자의 동기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공간상에서 발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신자들이 자신을 추대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사이버상의 명성이 형성되게 된다. 또한 파일공유를 통해 서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교환행위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파일 공유를 하는 것이 자신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 즉, 사이버 상에서 형성된 교환 관계를 기반으로 자신의 명성을 얻고자 하며, 파일 공유를 통해 필요한 것을 서로 교환하거나 향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치의 측면이 P-to-P를 통한 파일 공유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파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월감과 자긍심을 갖게 된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파일 공유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어려움을 알고 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고통을 해소를 위한 도움을 주고자 파일공유를 하게 된다. 즉, 우월감 및 자신감, 타인과의 유대관계 강화, 공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회 교환적인 요인과 대인관계 측면이 파일공유를 발생시키게 된다. 한편 파일공유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고려사항이 공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자신의 파

일공유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인지가 높을수록 파일공유의 의도와 행위의 감소성향의 응답을 하고 있다.

## IV.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나타난 동기 요인들이 파일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발신자의 불법적파일공유의 동기로 발견된 도움성향(친사회적 성향, 공감, 잠재적 보상기대), 자아표현(명성, 자아표현), 저작권에 대한 고려요인 등이 파일공유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 1. 이론적 배경

공유행위는 친사회적 행동의 구체적인 행동결과로서 다양한 동기로 인한 사회적 교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공유행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현재 사회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개인 간 직접적인 공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교환이란 교환의 상대방으로부터 보상과 같은 혜택을 받았을 때 추후 이에 합당한 보답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무감을 갖게 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Blau, 1964).

많은 소비자들은 불법복제 및 파일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상품들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자신들의 불법복제 및 파일공유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Kwong et al., 2003). Cordell et al.(1996)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불법적인 제품의 구매의도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제품 구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파일의 발신 동기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공유되는 파일은 기술에 의존하여 인지적 또는 금전적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즉 원본 파일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가치를 유지시키므로 발신자 또는 제공자의 관점에서 물리적 손실(loss)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웹 사이트의 이용용이성, 속도, 검색기능(Liu and Arneet, 2000) 등이 제공자의 파일 전송 시간과 노력을 줄여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도 한다(김효근 외, 2000).

### 1.1 원격현존감(Telepresence)

가상환경에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또는 가상환경을 여행한다거나 가상 객체와 상호작용할 때 가상공간에 내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를 현존감(presence)이라고 한다. ‘현존감’이라는 단어는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에서

착안한 것으로 가상공간을 현실처럼 지각하며 실제 존재하는 감각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즉, 현존감이란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 안에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을 말한다(Lessiter et al., 2001; Lombard and Ditton, 1997; Schubert et al., 2001). Minsky (1980)는 가상공간에서의 자극에 대한 감각기관의 반응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원격현존감(telepresence)’이라는 용어로 재정의 하였다. 현존감은 그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었고 새로운 기술적 환경에 적용하여 ‘가상현존감(Virtual Presence)’, ‘매개현존감(Mediated Presence)’ 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현존감은 매체사용자가 매체가 제공하는 가상세계의 사물과 사건을 현실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에 대해 직접적인 심리적·신체적 반응을 보이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김태용, 2000; Kim, 1996; Kim and Biocca, 1997). 최근 현존감의 개념이 기술적 특성에 좌우되는 개념이 아니라 기술에 의한 자극의 지각 또는 지각하는 과정을 다루는 심리학적 개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존감(Presence)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통합되고 있다.

지각적 실감은 심리학에서 주로 언급되는 몰입(Immersion)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몰입은 현존감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Slater and Wilbur(1995)에 의하면 몰입의 정도가 클

수록 현존감을 더욱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존재감의 강도가 몰입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수행할 과제(Task)에 주의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만약 과제 수행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가상공간을 실제 공간으로 지각하여 존재감이 높아질 것이다.

Fontaine(1992)은 현존감을 어떤 것에 대해 집중(attention)을 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고, McGreevy(1992) 역시 이와 비슷하게, 현존감의 경험은 연관성이 있는 연속된 자극물에 대한 집중을 통해 발생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Witmer and Singer(1998)는 현존감은 의미 있는 연속된 가상 환경 자극에 집중하는 결과로써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이용자가 자극을 일으키는 가상 환경에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현존감을 일으키는 가상환경에 더욱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가상환경과 실제 환경의 차이의 간극이 좁혀질 것이다.

또한 사회적 현존감(social presence)은 커뮤니케이터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심리적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중 하나이다. 사회적 현존감의 개념은 Short, Williams, and Christie 등에 의해 1976년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현저성(salience of the other)”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 1.2 친사회적 성향 및 이타성향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돕는 사람의 의도나 동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도움을 주기위해 계획된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이동원, 박옥희, 2003). 공유행동(Sharing behavior)뿐만 아니라 도움주기(helping), 기부(donation), 배려(comforting), 협조(cooperation)등의 수행을 통해 타인에게 유익하며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모든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Mussen and Eisenberg, 1989). 친사회적 행동에는 순수하고 사심 없는 이타적 행동에서부터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특정 목적 하에 남을 돕는 행동까지도 포함된다(이동원, 박옥희, 2003). 즉, 친사회적 행동은 돕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보상을 전제로 남을 돕는 조건적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무조건적 이타성향(altruism)을 가지고 있는 행동이다. 따라서 모든 이타적 행동은 친사회적 행동이지만 모든 친사회적 행동이 이타적인 것은 아니다.

이타행동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동기와 상관없이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 순수한 동기로 돕는 행동을 이타행동으로 분류했다(Batson, 1988). 즉 이타적 행동은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 발생한 행동이다. 실제 이타성향은 도와주기, 나눠주기, 기부, 배려, 협조, 위로 등(e.g., Batson et al., 1981; Batson et al., 1983)의 행동으로 표현된다. 이타성향은 그것이 유발되는 과정이나 동기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도움행동에 대한 Batson(1991)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는 반드시 순수하게 이타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며, 타인들의 고통을 동시에 느낄 때 그러한 고통이 유쾌하지 않은 감정이므로 이를 해소하려고 하며 그 중 안 방법으로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움으로서 고통의 원천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했다(Cialdini et al., 1997). 도움행동자체가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지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반드시 도움행동을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부채감, 타인의 기대에 대한 동조, 외적 보상의 기대, 이타성향(altruism)등과 같은 다양한 동기의 결과로서 수행될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게 되면, 타인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타적인 동기가 생겨나게 되고 이를 위해 도움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공감-이타성향 가설(empathy-altruism hypothesis)이다(Batson 1991; Hoffman, 1987). 이 이론에 의하면 곤경에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공감을 낳고 이 공감은 다시 곤경에 있는 타인

의 심통을 줄이려는 이타성향 동기를 발생시킨다. 즉 이타성향을 보임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이타성향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받게 될지 모르는 처벌과는 관련 없이 남을 돕기 위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타인의 복지를 위한 이타적인 동기가 도움행동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도움에 대한 동기는 속성상 이타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본다.

반면 공감-이타성향 가설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이기적인 이유, 즉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타성향을 보인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Comte, 1851; Bauman et al., 1981). 이기적 동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감은 이타적 행동을 장려하지만 이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이타적 행동에서 오는 자기 자신에 이득 때문이라고 본다. 남을 도우려는 행동은 꼭 순수한 동기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질적, 혹은 사회적 비난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혐오적인 각성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가능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남을 돕는 것은 돕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Cialdini et al.(1987)은 그들이 주창한 부정적 감정 감소 모델(negative state relief model)에서 남을 돕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남을 돕는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곤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공감은 자신의 기분을 저하시키므로 이 저하된 기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남을 도와 준다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고통을 느끼고 남을 돕는 사람의 공감능력은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른 사람의 고통, 슬픔, 또는 그런 종류의 다른 감정 반응을 대리 체험하는 사람은 타인의 욕구를 해소해 주려고 동기화 된다는 가정에 의해서(Feshbach, 1978; Hoffman, 1975), 감정이입은 친사회적 행동의 잠재적 동기요인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수용하여 대리 체험하는 것으로서 이타주의에 가장 근접하는 개념이며(Underwood and Moore, 1982a) 대인관계의 민감성과 사회적 유능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Zhou et al., 2002).

따라서 발신자가 가상현존감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친사회적인 성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친사회적 성향이 높을수록 다른 이를 돕고자 하는 이타성향이 잘 발휘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추론하였다.

**H1: 가상현존감 정도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친사회적 성향이 높을수록 파일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공감(Empathy)

공감에 대한 정의는 서로 상관은 있으나 각기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먼저, 어떤 학자들은 공감을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지각하였을 때 나타나는 대리적인(vicarious) 정서반응으로 보고 있다(Feshbach and Roe, 1968). Hoffman(1982)은 이러한 반응을 자신과는 다른 상황에 처한 타인의 감정을 대리 경험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와는 달리, Coke et al.(1978)은 공감을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 대한 걱정과 연민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면, 고통이나 슬픔에 처한 사람을 보고 걱정하며 근심을 느끼는 경우가 이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Coke et al.의 정의는 Hoffman(1984)의 동정적 고통(sym pathetic distress)과 유사한 개념이다(Eisenberg, 1986, 재인용). 공감에 대한 개념이 이처럼 타인의 감정에 대한 대리적 경험과 동정심이란 두 요소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 둘은 서로 분리된 정서적 경험이 아니며 상호 연관되어 발생한다(Bryant, 1982). 이는 Mehrabian and Epstein(1972)이 내린 공감의 정의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공감을 타인의 상태에 대해 정서적으로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과 동정적 반응이 합해진

것이라고 하여, 공감의 정의에 동정심을 포함시켰다.

공감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에 대해 주로 연구해 왔다. 인지적 요소란 공감적 정서 또는 공감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지적인 기제를 의미한다. 인지적 요소를 지칭하는 주요 개념들에는 감정재인, 역할 혹은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등이 있다. 이것은 일치적 공감, 예언적 공감, 반성적 공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정서적인 요소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 상태이다.

또한 감정이입은 타인의 감정적 상태나 조건에 일치되어 일어나는 감정적 반응으로서(Eisenberg and Faber, 1998), 동정(sympathy)이나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중 하나로 귀결된다(Eisenberg et al., 1991). 동정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 감정 상태나 조건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타인 지향의 감정적 반응이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염려의 느낌이며 그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켜주려는 욕구의 느낌이다(Zhou et al., 2002). 자신과 구별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지적 감각이 수반될 때 감정적 각성은 그 타인을 위한 동정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고통과 관련된 단서를 지각하면서 불안이나 불쾌와 같은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Batson, 1991; Zhou

et al., 2002). 즉 개인적 고통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나 조건을 이해할 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회피하려는 감정적 반응이다. 개인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 어려울 때에만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터넷을 따뜻하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라고 인식하는 이용자 일수록 인터넷을 사회성, 편리성,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apacharissi and Rubin, 2000). 따라서 가상현존감은 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친사회적 성향이 강할수록 공감에 긍정저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공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파일공유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 H3: 가상현존감 정도가 높을수록 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친사회적인 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파일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잠재적 보상기대(Potential Compensation)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이웃, 친구,

또는 낮모르는 사람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상시에 상부상조하는 행동을 하게 된 연유가 있는데 하나가 사회적 규범이다. 상호 호혜(reciprocal)는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이해하는데 가장 주된 명제로 본다(마은경, 김명숙, 2005). 즉 인간관계란 서로 보상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라고 본다. 호혜성 규범은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간의 이익의 상호 교환을 규정한다. 양자관계에서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타적인 일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이타적 행동을 한다. 호혜성의 규범은 이타적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이다. 이것은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사회적 관계를 고취시킨다. 인간의 모든 사회행위가 보상의 교환행위로 규정되는 것이며, 만약에 어느 일방이 받기만 하고 주는 보상이 주는 것이 없을 때는 사회관계는 단절되거나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동원, 박옥희, 2000).

호혜성 규범은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간의 이익의 상호교환을 규정한다. Gouldner(1960)는 사람들이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응보규범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1)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는 도움으로 보답해야 한다. (2)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해쳐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도움행동은 이 응보규범에 근거하여 이

루어진다.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또한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먼저 도움을 준다(신응섭 외, 2005).

본 연구에서 발신자가 먼저 파일을 받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 언제 간 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파일 제공에 대한 보상은 공유의 특정 수신자가 아니어도 네트워크 혹은 커뮤니티에 속한 다른 네티즌에게서도 줄 수 있다(Abell and Reyniers, 2000). 반면에 아직 파일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슨 기대가 있다면 먼저 파일을 보내고 나중에 자기가 파일을 필요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 하였다.

**H6: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잠재적 보상 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잠재적 보상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파일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5 명성(Reputation)과 자기표현(Self-Presentation)

명성의 사전적 의미는 신뢰가치성(trustworthiness)의 개념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명성, 규모(size)는 상점의 평판에 대해 느끼는 소비자들의 인지정도로 개념화되며 구매자가 판매 기관에 대해 느끼는 ‘성실함’ 정도로 확장되어 정의되기도 한다(문영주, 이종호, 2006).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명성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의 평판과 유명정도라고 할 수 있다(이국용, 2005). 온라인 환경에서 명성과 관련된 대표적 연구로 McKnight et al.(2002)은 명성이 온라인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가 소속되어 있는 웹사이트의 명성과 해당 커뮤니티의 유명도 등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와 사용자 몰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명성은 주변 사람들이 한 개인의 현재 성격과 성취의 결합에 대한 지각된 반응이다(Greenberly, 2003). Blau(1964)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할 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든 자신의 위상이나 남들에게서의 인정, 존경 등의 사회적 보상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명성은 온라인에서 개인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다(Jones et al., 1997).

어떤 사람에게 한 사회집단에 일정한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명성 촉진 이론(Reputation enhancement theory)에 의하면 개인이 자기가 원

하는 이미지하고 사회적 아이덴티티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이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구체적인 행동을 택한다(Emler, 1984). 따라서 명성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록 파일공유를 통해 타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적극적으로 파일공유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표현(self-presentation)은 타인에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행위(Leary, 1995)자기표현 노력은 자신, 환경 또는 상황, 그리고 타인의 평가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타인이 지각하게 될 자신의 인상 또는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특징으로 한다(Schlenker et al., 1996; Schlenker et al., 1994). 즉 타인의 긍정적 평가를 탐색하고 의식적으로 타인의 비난을 기피하려는 목표 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Baumeister, 1982; Leary and Kowalski, 1990; Schlenker, 1980).

Goffman(1959)에 의하면 자기표현은 매일 지속되는 협상과 정보조절의 과정이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태도와 궁극적으로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상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한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자기표현을 조절한다. 박수아(2006)는 블로그 운영자가 자기표현을 통해 전달하려는 인상과 방문자가 지각하

는 인상을 비교하여 방문자가 블로그 운영자에 대해 갖는 인상이 운영자가 제시한 자기표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뜻한’ 인상이 제시된 경우에는 따뜻한 사람으로, ‘보수적인’ 인상이 제시된 경우에는 보수적인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블로그 운영자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부정적인 인상형성을 피하는 방향으로 자아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박수아, 2006).

자기표현은 자아정체성을 노출하는 것이므로 공적 및 사적 자아의식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노기영, 2002; Hass, 1984; Reno and Kenny, 1992). 공적자아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관계와 연계된 자기표현과 관련된다. 따라서 공적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적 인정이나 평판을 중요시 하여 이를 자기표현에 반영한다(노기영, 2002; Hass, 1984). 또한 공적 자아의식이 강하면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자아노출보다는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조직적, 집합적, 유대감형성을 유발할 수 있는 자아노출을 시도한다. 이와는 달리 사적 자아정체성은 개인중심적인 자기표현과 관련되어 있다(Hass, 1984). 사적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으

며 어떠한 인상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주로 자신이 관심을 갖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행동한다(노기영, 2002). 그러므로 사적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의식한 자아노출보다는 자신의 내적 상태(개인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정서나 사고를 중요시한다(Reno and Kenny, 1992).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과시하고, 가치와 신념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박유진, 김재휘, 2005). 따라서 온라인에서 상업적 파일을 전송하는 것이 또 발신자의 자기 표현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회적 자아확립과 자아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명성을 상승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8: 가상현존감 정도가 높을수록 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가상현존감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명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명성 수준이 높을수록 파일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자기표현 수준이 높을수록 파일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6 저작권에 대한 고려(Copy Right Consideration)

고전주의 범죄학에 근거하고 있는 범죄이론인 억제이론은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는 잠정적 범죄자이며 고통을 회피하려 하나다고 보는 고전주의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속성보다는 처벌 여부와 같은 외부적 여건에 의해 범죄가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처벌이 없거나 약하면 쾌락을 추구하려는 잠정적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를 것이며, 처벌이 확실하게 작동하고 그것이 강하다면 고통을 회피하려는 잠정적 범죄자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억제 이론가들은 공식기관에 의한 처벌의 효과에 주목했는데,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그리고 엄격성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다(Zimring and Hawkins, 1973; Gibbs, 1975). 즉 처벌이 범죄발생 즉시 신속히(검거가 한 달 걸리기 보다는 하루 혹은 이틀 만에) 이루어지고 처벌이 빠짐없이 확실하게 작동되며, 또 그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면 잠정적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범죄는 쉽게 저질러질 것이라고 보았다.

지역별로 체포검거율, 기소율,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고 확인한 결과, 처벌의 확실성에 따라 지역별로 범죄율에 차이

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해 억제이론을 지지하였다(Tittle, 1969; Logan, 1972).

처벌은 억제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처벌이 사회와의 유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즉 Williams and Hawkins(1986)가 애착손실과 관여손실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듯이, 공식기관의 처벌을 받으면 주위 사람들을 잃게 되고, 직장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듯이 처벌은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그러한 주장들은 처벌의 억제효과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회유대가 어느 정도 강한 사람에게서 작동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로 지지를 받았다(Sherman and Smith, 1992). 사회유대가 이미 낮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무섭지 않지만 사회유대가 강한 사람에게는 범죄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처벌의 억제효과는 사회유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유대가 낮은 사람에게서 더 작동된다는 주장이 있다(Grasmick and Green, 1980). 억제이론은 범죄 설명의 조건으로 잠정적 범죄자를 가정하는데, 사회유대가 강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처벌이 있고 없고가 범죄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야간

음주단속이 음주운전 여부에 별 영향을 못 미친다. 그들은 늘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시탐탐 음주 운전을 하려는 사람에게 야간 음주 단속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는 음주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주위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중퇴를 하거나 직업이 없는 애착관여가 낮은 사람에게서 처벌의 효과는 더 작동할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이러한 주장들은 도덕적 신념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는데, 즉 처벌의 억제효과는 도덕적 신념이 낮은 잠정적 범죄자에게 그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Pogarsky, 2002).

Gottfredson and Hirschi(1990)가 일반이론을 제시한 이래 개인성향으로서 ‘낮은 자기 통제력’이 범죄의 원인으로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억제이론의 처벌의 억제효과의 논의도 자기 통제력과 연관되어 논의되기 시작했다.

고전주의에 기반을 둔 억제 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합리적인 계산 하에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처벌이 강하면 범죄는 억제되지만, 그것이 약할 때는 범죄가 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Nagin and Pogarsky(2001)에 따르면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현재 지향적이고, 자신의 순간만족을 지연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작동하더라도 그것이 범죄를 억제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즉 자기 통제력이 낮은 충동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처벌의 억제 효과는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의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기존의 유통방식과 다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 즉, 아날로그 기술 환경에서는 고정된 형체에 저작물이 부착되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복사와 유통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사와 유통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무형으로 복사, 전송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유의선, 2000).

한편 Biegel(2001)은 인터넷 또는 사이버스페이스를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저작권법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원칙을 인터넷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Biegel, 2001).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김왕석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저작권법 소송관련 영향이 적게 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경우 저작권법 소송에 대한 인식수준은 미국과 비슷하였으나 허락받지 않은 음악과 일 공유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률적

규제방안의 강화보다 인터넷 파일공유 이용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파일공유와 저작권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규정의 숙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김왕석 외, 2005)

저작권법 위반 행위자의 처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우지숙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신고 된 이용자들은 저작권법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파일 공유에 저작권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별로 갖고 있지 않았고, 저작물 공유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시인하였다. 또한 저작권자에게는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합의금을 청구하는 법무대리업체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사이트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고 사이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앞으로 단속을 피해 저작물을 공유하겠다는 사람을 거의 없었고 공유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이 많이 나타났다. 즉 우지숙 외(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강력한 법적인 제재와 이를 통한 감시와 처벌이 개인들을 규율에 북돋우게 하는 강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추후 저작물의 공유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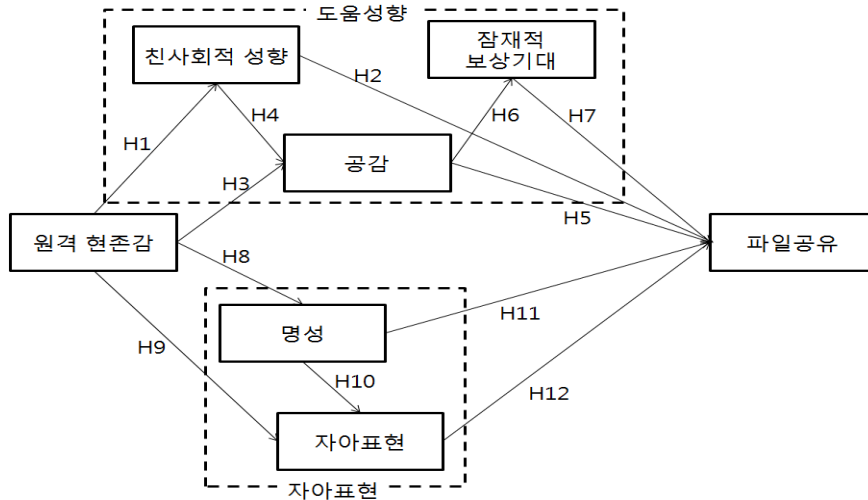
## 2. 연구모형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데 연구 1에서 정성적 조사를 실시하여 발신자 파일 공유 동기 요인을 탐색하였다. 정성적 조사의 결과 도움성향(친사회적 성향, 공감, 잠재적 보상기대), 자아표현(명성, 자아표현), 저작권에 대한 고려요인 등이 발신자의 파일 공유 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도움성향(친사회적 성향, 공감, 잠재적 보상기대), 자아표현(명성, 자아표현), 저작권에 대한 고려의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온라인 파일 공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1] 참조).

## 3. 연구 방법

###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1과 문헌조사를 통해 탐색된 동기 요인들이 파일 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0, 30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총 220명이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약 23세였다. 성별 구성은 남자 52.7%, 여자 47.3%였다. 총 회수된 220부의 설문지 중 상업적 파일을 제공한 적이 없는 응답자와 질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응답하지 않



[그림 1] 연구모형

은 15부를 제외하고 205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3.2 측정 방법

파일 제공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제외하기 위해 과거 파일 제공 경험 여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중 선택하여 표기하도록 유도하였다. 원격현존감에 대한 질문은 Claudia Mary Hendrix(1994)의 항목을 수정한 3문항을,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Smith(2003)의 연구의 항목을 변형하여 7문항으로 질문하였고, 잠재적 보상기대와 관련한 질문은 Wasko and Faraj(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3문항을, 친사회적 성향은 Morgan and Miller(2002)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10문항, 명성에 대한 질문은 Wasko and Faraj(2005)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적절하게 변형하여 3문항을 사용하였고, 자아표현에 대한 질문은 Han et al.(2007)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을 수정·보완한 3문항, 저작권에 대한 고려와 관련된 질문은 Evangeline R. Danseco, Paul M. Kingery and Mark B. Coggeshall(1999)의 항목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4개 항목으로 측정을 하였고, 공유 의지는 Chiou et al.(2005) 연구에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사용하여 1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인구통계 특성에 관한 질문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질문지 작성자

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관련된 변수들을 묶어 각 요인 간 상호 독립적 특성을 갖게 하고 요인 내의 변수들의 공통성을 찾아 그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 사용하였고, 아이겐 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여 분석 하였다. 요인회전은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하였다. 원격현존감, 친사회적 성향, 자

아표현, 잠재적 보상기대, 저작권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원격현존감, 잠재적 보상기대, 자기표현은 삭제 항목이 없고, 친사회적 성향은 10개 항목 중 7개 항목 삭제, 저작권에 대한 고려사항 요인은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삭제되었다. 공감, 명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공감요인은 7개 항목 중 5개가 삭제되었고, 명성 항목은 삭제된 항목 없이 모두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분석을 실시 한 후 나타난 요인들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이용

<표 2> 요인분석 결과

항목	factor loadings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Alpha
원격현존감 1 원격현존감 2	.921 .921	1.698	84.892	.821
친사회적 성향 1 친사회적 성향 2 친사회적 성향 3	.732 .719 .731	2.938	29.382	.678
명성 1 명성 2	.902 .818	2.156	71.874	.840
공감 1 공감 2 공감 3	.796 .809 .827	3.714	53.053	.841
잠재적 보상기대 1 잠재적 보상기대 2 잠재적 보상기대 3	.744 .928 .932	2.283	76.112	.907
자아표현 1 자아표현 2	.911 .937	2.408	80.266	.773
저작권에 대한 고려 1	.964	1.005	25.116	

하여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가 .7을 넘으면 보통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보고(Numally 1978), 전체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간주하여 분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은 요인분석에 의해 타당성이 검증된 항목만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는 Cronbach's  $\alpha$ 가 0.7 이상으로 높은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4.2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상업적 파일 공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모형의 평가와 가설검증을 위하여, 최근 많이 이

용되고 있는 AMOS 7.0을 사용하여 경로 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경로 분석은 특정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된다.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전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수의 항목들의 평균값을 변수로 사용 분석하였으며, 하나의 지표로 묶어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는 <표 3>에 보고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해 이용자들이 불법적 파일공유에 따른 위험의 지각수준에 따라 risk high와 risk low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집단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집단구분의 기준으로 평균 또는 중간값을 이용한다. 본 연구

<표 3> 법적위험지각도가 높은 집단의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n = 94)	Mean (SD)	Correlations						
		1	2	3	4	5	6	8
1. 원격현존감	2.963 (1.353)	1.000						
2. 친사회적 성향	4.114 (1.015)	.473**	1.000					
3. 공감	4.426 (1.220)	.116	.208**	1.000				
4. 명성	2.621 (1.303)	.128	.396**	.089	1.000			
5. 자아표현	2.273 (1.179)	.261*	.122	.442	-.068**	1.000		
6. 잠재적 보상기대	3.840 (1.241)	.158	.358**	.272**	.386**	.184**	1.000	
8. 파일공유	3.93 (1.246)	.100	.089	.203	.158	.251**	.317**	1.000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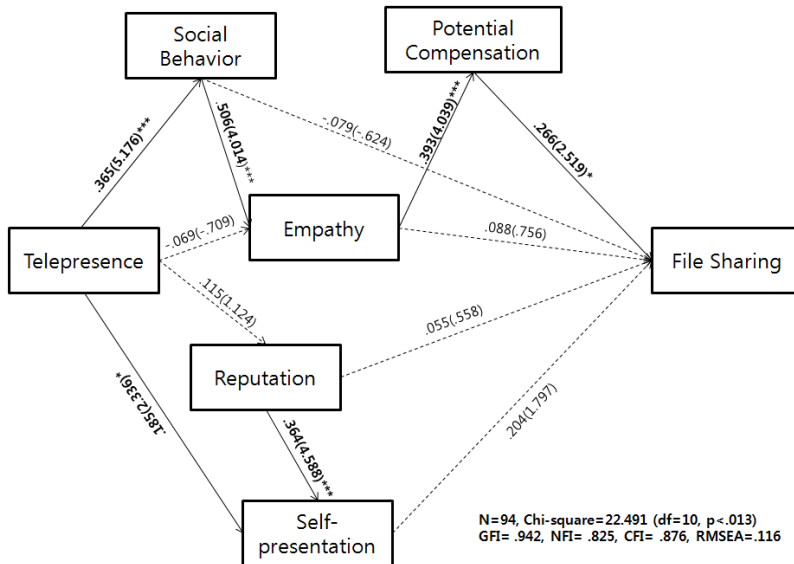


에서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한 Sujun, Weitz, and Kumar (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중간값을 이용하였다. risk high와 risk low를 나누는 중간값(Median)은  $1 < M \leq 5$ 의 값은 risk low이고  $5 < M \leq 7$  값을 갖는 경우 risk high로 구분하였다(M = 중간값).

(1) 저작권에 대한 법적 위험 지각도가 높은 집단

법적 위험지각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제안된 모델의 전체적인 적합도 인덱스(model fit)는 다음과 같다. Chi-square는 22.491(df = 10; p < .013), goodness-of-fit index(GFI)는 .945, normed fit index(NFI)

는 .825, comparative fit index(CFI)는 .876, RMSEA는 .116로 보고되었다. 경로 분석결과([그림 2] 참고) 원격현존감은 친사회적 성향( $\beta_1 = .365, t = 5.176, p < .001$ )에 대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파일공유( $\beta_2 = -.079, t = -.624, p = .533$ )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H1은 지지되었으나 H2는 기각되었다. 또한 원격현존감은 공감( $\beta_1 = -.069, t = -.709, p = .478$ )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나 그 영향 관계는 유의미하지 못하여 H3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친사회적 성향은 공감( $\beta_2 = .506, t = 4.014, p < .001$ )에 긍정적인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법적위험도가 높은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유의한 관계가 성립되어 H4은 지지 되었다. 또한 공감은 파일공유( $\beta_3 = .088, t = .756, p = .450$ )에는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지만, 이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H5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공감은 잠재적 보상기대( $\beta_3 = .393, t = 4.039, p < .001$ )에 긍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6은 지지되었다. 잠재적 보상기대는 파일공유

<표 4> 변수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총 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b>파일공유</b>			
원격현존감	.047	.047	-
친사회적 성향	.009	.085	-.076
명성	.137	.082	.055
공감	.198	.099	.098
자아표현	.197	-	.197
잠재적 보상기대	.257	-	.257
<b>잠재적 보상기대</b>			
원격현존감	.050	.050	-
친사회적 성향	.167*	.167*	-
명성	-	-	-
공감	.386*	-	.386*
자아표현	-	-	-
<b>자아표현</b>			
원격현존감	.261*	.048	.213
친사회적 성향	-	-	-
명성	.418*	-	.418*
공감	-	-	-
<b>공감</b>			
원격현존감	.128	.205*	-.076
친사회적 성향	.433*	-	.433*
명성	-	-	-
<b>명성</b>			
원격현존감	.116	-	.116
친사회적 성향	-	-	-
<b>친사회적 성향</b>			
원격현존감	.473*	-	.47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 $\beta_6 = .266, t = 2.519, p < .05$ )에는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H7은 지지되었다. 원격현존감 명성( $\beta_1 = .115, t = 1.124, p = .261$ )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H8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자아표현( $\beta_1 = .185, t = 2.336, p < .05$ )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9은 지지되었다. 한편 명성은 자아표현( $\beta_4 = .364, t = 4.588, p < .001$ )에는 유의미한 관계의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나, 파일공유( $\beta_4 = .055, t = .558, p = .072$ )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보였지만 유의미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H10은 지지되었고, H11은 기각되었다. 또한 자아표현은 파일공유( $\beta_5 = .204, t = 1.797, p = .072$ )에 대해 유의미하지 못한 긍정적 영향관계를 나타내어 H12는 기각되었다.

변수간의 직간접적인 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 4> 참고). 파일공유에 대해서는 모든 변수가 직간접의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보상기대와 관련된 변수 가운데 친사회적 성향( $\beta = .167, p < .05$ )로 간접효과를 공감( $\beta = .386, p < .05$ )로 직접효과를 보였다. 자아표현은 원격현존감이( $\beta = .261, p < .05$ )로 직접 및 간접효과는 없었으나 총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명성( $\beta = .418, p$

$< .05$ )로 직접효과를 보였다. 공감은 원격현존감( $\beta = .205, p < .05$ )로 간접효과가 있었고 친사회적 성향( $\beta = .433, p < .05$ )로 직접효과가 있었다. 명성은 변수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친사회적 성향에 대해 원격현존감( $\beta = .473, p < .05$ )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저작권에 대한 법적위험 지각도가 낮은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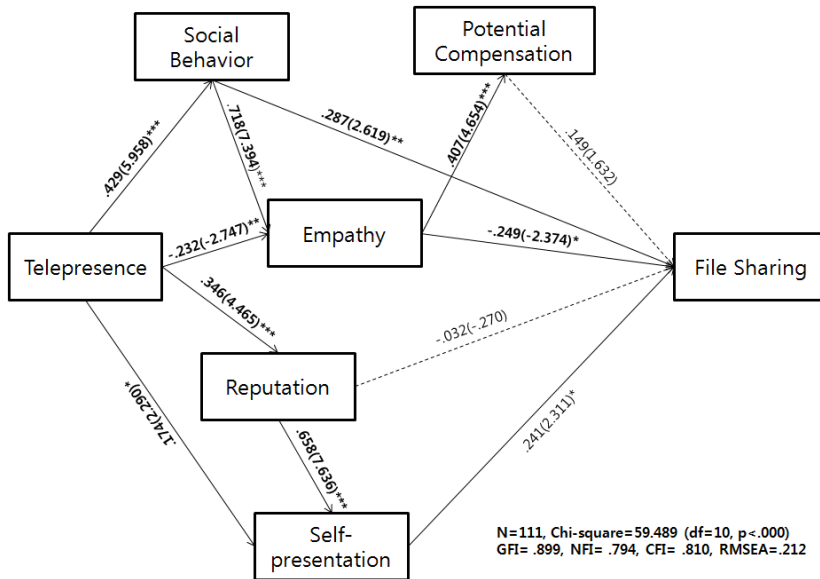
법적위험 지각도가 낮은 경우, 제안된 모델의 전체적인 적합도 인덱스(model fit)는 다음과 같다. Chi-square는 59.489 (df = 10; p = .000), Goodness-of-fit index(GFI)는 .899, Normed fit index(NFI)는 .794, Comparative fit index(CFI)는 .810, RMSEA는 .212로 보고되었다.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는 <표 5>에 보고되었다.

경로분석 결과([그림 3] 참고) 원격현존감은 친사회적 성향( $\beta_1 = .429, t = 5.958, p < .001$ )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H1은 지지되었다. 한편 친사회적 성향은 파일공유( $\beta_2 = .295, t = 2.377, p < .05$ )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H2는 지지되었다. 또한 원격현존감은 공감( $\beta_1 = -.232, t = -2.747, p < .01$ )에는 부(-)의 영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유의미하여 H3는 지지되었다. 친사회적 성향은 공감( $\beta_2 = .718, t =$

<표 5> 법적위험 지각도가 낮은 집단의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

변수(n = 111)	Mean (SD)	Correlations						
		1	2	3	4	5	6	7
1. 원격현존감	2.923 (1.316)	1.000						
2. 친사회적 성향	3.941 (1.185)	.494**	1.000					
3. 공감	4.183 (1.243)	.392	.294**	1.000				
4. 명성	2.643 (1.111)	.081**	.539*	.176	1.000			
5. 자아표현	2.547 (1.331)	.405**	.205	.654	.105**	1.000		
6. 잠재적 보상기대	3.793 (1.248)	.447**	.652**	.276**	.406**	.261**	1.000	
8. 파일공유	4.40 (1.316)	.401**	.231	.227	-.021**	.291**	.200*	1.0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3] 법적위험도가 낮은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7.394,  $p < .001$ )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H4는 지지되었다. 또한 공감은 파일공유( $\beta_3 = -.249$ ,  $t = -2.374$ ,  $p < .05$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이는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잠재적 보상기대( $\beta_3 = .407$ ,  $t = 4.654$ ,  $p < .001$ )에는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H5와 H6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잠재적 보상기대는 파일공유( $\beta_6 = .149$ ,  $t = 1.632$ ,  $p = .103$ )에는 긍정적 영향관계를 보였으나 그 관계는 유의하지 못하여 H7은 기각되었다. 원격현존감은 명성( $\beta_1 = .346$ ,  $t = 4.465$ ,  $p < .001$ )과 자아표현( $\beta_1 = .174$ ,  $t = 2.290$ ,  $p < .05$ ) 모두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H8과 H9은 지지되었다. 또한 명성은 자아표현( $\beta_4 = .658$ ,  $t = 7.636$ ,  $p < .001$ )에는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어 H10은 지지되었으나, 파일공유( $\beta_4 = -.032$ ,  $t = -.270$ ,  $p = .787$ )에는 유의미 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 관계를 보여 H11은 기각되었다. 자아표현은 파일공유( $\beta_5 = .241$ ,  $t = 2.311$ ,  $p < .05$ )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 관계를 보여 H12는 지지되었다.

변수간의 전체적 관계를 직접, 간접 효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표 6> 참조), 파일공유 의지에 원격현존감( $\beta = .215$ ,  $p < .05$ )과 명성( $\beta = .137$ ,  $p < .05$ )으로 간접효과만 보였으나, 자아표현( $\beta = .234$ ,  $p < .05$ )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잠재적 보상기대 변수에는 친사회적 성향( $\beta = .236$ ,  $p < .05$ )은 간접효과를, 공감( $\beta = .406$ ,  $p < .05$ )은 직접효과를 보였다. 자아표현에 대해 원격현존감은 직접효과( $\beta = .175$ ,  $p < .05$ )와 간접효과( $\beta = .229$ ,  $p < .05$ ) 모두 발생하였으며, 명성( $\beta = .585$ ,  $p < .05$ )로 직접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공감에 대해 원격현존감은 직접효과( $\beta = -.245$ ,  $p < .05$ )와 간접효과( $\beta = .326$ ,  $p < .05$ )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었으나 총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사회적 성향( $\beta = .661$ ,  $p < .05$ )로 직접효과가 있었다. 명성과 친사회적 성향에 대해서는 원격현존감이 각각  $\beta = .329$ ( $p < .05$ )와  $\beta = .494$ ( $p < .05$ )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4 가설검증 결과

가설검증 결과 파일공유 행동에 있어서는 발신자가 저작권에 대한 고려에 따라 그 원인 변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저작권에 대한 법적위험 지각도의 정도에 따라 파일공유에 영향요인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법적위험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에는 파일공유에 있어 잠재적 보상기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법적위험에 대한 지각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잠재적 보상기대요인은 파일공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친사회적 성향, 공감과 자아표현 요인이

&lt;표 6&gt; 변수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총 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b>파일공유</b>				
원격현존감		.215*	.215*	-
친사회적 성향		.133	-.124	.257
명성		.159	.137*	.023
공감		-.188	.021	-.209
자아표현		.234*	-	.234*
잠재적 보상기대		.051	-	.051
<b>잠재적 보상기대</b>				
원격현존감		.033	.033	-
친사회적 성향		.268*	.268*	-
명성		-	-	-
공감		.406*	-	.046*
자아표현		-	-	-
<b>자아표현</b>				
원격현존감		.405*	.229*	.175*
친사회적 성향		-	-	-
명성		.585*	-	.585*
공감		-	-	-
<b>공감</b>				
원격현존감		.081	.326*	-.245*
친사회적 성향		.661*	-	.661*
명성		-	-	-
<b>명성</b>				
원격현존감		.392*	-	.392*
친사회적 성향		-	-	-
<b>친사회적 성향</b>				
원격현존감		.494*	-	.49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파일공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파일 공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법적 위험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라 명확하게 차이가 발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높음 위험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법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파일공유를 함으로 인해 그에 합당한 보상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공유행위를 유발시키지만, 낮은 법적위험 지각 집단은 이타적 성향

과 친사회적 성향,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공감,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아표현에 의해 파일공유를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P2P를 통한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인 공유 행위에 대한 발신자의 동기를 파악하여 불법적인 파일 공유 행동을 감소와 함께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가이미지 개선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건강한 법적 인식을 심어주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신자의 경우 상업적 파일의 다운로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만, 발신자의 경우 불법적인 공유행위로 인한 법적인 처벌의 위험과 함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파일공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선행 연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탐색적 연구로부터 출발하였다. 발신자들의 파일 동기 요소들을 찾아내고자 파일공유 행위 시 발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들의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나타난 파일공유의 동기 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 모형을 수립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현재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인 공유로 인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마케터들은 소극적으로 법적 대응만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를 통해 나타난 원격현존감, 친사회적 성향, 공감, 자아표현, 잠재적 보상기대, 명성, 법적 위험도에 대한 고려 등의 요인과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 공유 동기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수요자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던 것과 다르게, 발신자 측면의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본 연구는 발신자가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 공유행위에 대해 제한적이거나 발신자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불법적 상업파일의 공유는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느끼고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 공유행위에 있어 법적위험도를 높게 지각한 경우에는 잠재적 보상기대 요인만이 파일공유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요인들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법적위험도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은 파일 공유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 보상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국한되어 공유를 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P2P와 P2P 사이트 등을 통한 공유로 인한 금전적 또는 여타 보상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파일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법적위험도를 낮게 지각한 경우에는 상업적 파일 공유에 있어 낮은 법적위험 지각 집단은 이타적 성향 및 친사회적 성향,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공감,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아표현에 의해 파일공유를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위험도를 낮게 인지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인 공유에 대한 위험성이 공유 행위에 크게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낮은 법적위험인지로 인해 자신의 파일공유가 다른 사람을 돕는 친사회적 행동이라 생각하고,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들보다 많은 상업적 파일을 공유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여 파일공유 행위를 함에 있어 법적위험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위험도를 낮게 인지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파일공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자아표현의 욕구보다 중요하게 인지되면 파일공유의 행위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 간 상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 파일의 불법적 공유 행동에 있어 위험인지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불법적인 공

유행위를 적게 하게 된다. 이는 우지숙 외(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파일공유 행위를 중단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결과와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인 공유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관련 산업과 기업들은 현재와 같이 소극적인 법적 대응과 자세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발신자의 파일공유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켜주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불법적 공유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상업적 파일 공유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칠 발신자의 동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 공유에 대한 법적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우지숙 외(2008)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처벌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지하게 되면 불법적인 파일공유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파일공유 행위를 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받게 될 처벌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공유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법적인 위험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 파일공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잠재적인 보상의 기대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처벌의 가능성 보다 보상이 낮다고 인식하면 파일공유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공유행동에 대한 높은 처벌로 인해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인 공유에 대한 높은 법적위험성을 인지 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불법적 파일공유에 대한 잠재적 보상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이다. 파일공유에 따른 잠재적 보상기대감으로 인해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지하면서도 파일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자신의 파일공유로 인해 추후에 자신이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공유로 인한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불법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파일 공유행위는 불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추후에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즉,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 공유에 대한 보상이 없을 알리는 홍보를 통해 발신 동기를 낮춰져야 한다.

셋째,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 공유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님을 인지시켜야 한다. 불법적인 파일공유의 요인으로 파일공유를 통해 타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과 함께, 타인의 어려움을 같이 느끼는 공감성이 형성되어 파일

공유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어 도움을 주다가 파일공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상업적 파일의 공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산업전반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제고를 통해 불법적 파일공유를 줄일 수 있다.

넷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는 것이다.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인 공유의 요인으로 저작권에 대한 고려수준에 따라 공유 행동이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 공유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것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파일공유의 동기를 낮춰주어 불법적인 상업적 파일의 공유를 줄여줄 것이다. 즉 저작권에 대한 고려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법적인 위험성도 높게 인식하게 되어 불법적인 공유 행위를 하지 않거나 그 빈도가 매우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한 광고 및 거리 홍보 등을 통해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 공유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인 공유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공유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상업적 파일의 불

법적인 공유로 인해 어떤 경제적 보상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이 존재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광고 등을 통해 깊게 인식시켜야 한다. 잠재적 보상 기대는 법적인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도 파일공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낮춰준다면 불법 공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자신의 상업적 파일의 불법적 공유가 결코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친사회적인 행동이 아님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된다면 불법적인 것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친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자신의 불법 공유 행위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이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여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다수의 기존의 연구들이 수신자의 측면에서 공유를 바라본 것과 달리 발신자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법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공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을 알 수 있었으며, 추후 상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 파일의 불법적인 공유를 낮출 수 있는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인터넷

공간에서 모든 상업적 파일 공유행위자 전체를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파일 전송에 열중한 사람과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에게만 공유하는 사람과의 동기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MP3, 영화, 게임 등 상업적 파일의 공유에 있어 10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로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기 때문에 주 파일공유 집단인 10대의 파일 공유에 대한 동기를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파일공유를 하는데 있어 열중한 집단과 단지 지인 간에만 공유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별 동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파일공유 주 연령집단인 1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전체 연령대 별로 공유하는 파일의 종류와 각 연령대별 발신자의 동기를 비교하여 각각의 집단별 동기유형에 적합한 불법적인 파일공유 행위 방지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강명수, 전종근, 홍성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거래수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 연구』, 제14권, 제1호(2003), pp.123-140.
- [2] 강미은, “인터넷과 기존 매체 이용

- 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제50권(2000), pp.179-20.
- [3] 권중문, 이상식, “프레즌스(presence)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미디어 형태와 수용자 특성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7권, 제2호(2007), pp.5-38.
- [4] 김순혜, 김정원,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수준 및 대인관계 성향과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2호(2004), pp.83-97.
- [5] 김태용, “텔레프레즌스: 개념연구와 연구의의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 제15권(2000), pp.21-41.
- [6] 김호영, 김진우,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제12권, 제3호(2002), pp.89-114.
- [7] 김화동, “소비자 쇼핑 가치가 CATV 홈쇼핑 채널의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보』, 제6권, 제4호(2004), pp.87-120.
- [8] 김호근, 문남미, 김지성, “웹 사이트 콘텐츠 특성이 웹 사이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User-Centric Internet Shopping Mall을 중심으로”, 『한국멀티미디어학지』, 제4권, 제1호(2000), pp.60-73.
- [9] 노기영, “개인 웹 페이지 표현양식에 대한 자아의식의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46권, 제2호(2002), pp.279-302.
- [10] 마은경, 김명숙, “공공기관 내 구성원간의 지식공유에 관한 연구: 사회교환이론 관점에서”, 『Information System Review』, 제7권, 제1호(2005), pp.195-215.
- [11] 문영주, 이종호, “온라인 커뮤니티 결정요인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4호(2006), pp.85-107.
- [12] 박수아, “가사 사회의 자기 제시와 인상 형성 차원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13권, 제2호(2006), pp.165-188.
- [13] 박유진, 김재휘,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지가 커뮤니티 몰입과 동일시 및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19권, 제1호(2005), pp.13-25.
- [14] 박재홍,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교환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5권(1991), pp.1-20.
- [15] 박종진, 김창수, “사회교환이론 관점에서 전시박람회 관람자의 중요도 성과분석(IPA)”, 『관광연구저널』, 제22권, 제1호(2008), pp.101-119.
- [16] 서건수,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과 개인 특성이 사용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정보학연구』, 제

- 13권, 제2호(2003), pp.1-21.
- [17] 성연광, 김희정, P2P 사이트 전면 폐쇄는 기우, 머니투데이, 2007.
- [18] 신건호, 문연심, “인간지향적 부모 자녀관계가 유아의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제15권, 제3호(2006), pp.257-269.
- [19] 양성은, 정문자, “공감과 사회적 평가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제16권, 제2호(1995), pp.97-112.
- [20] 양형은, “일본의 카지노 합법화와 지역주민의 태도에 대한 연구: 관광산업 종사자와 사회교환이론의 검증”,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5권, 제1호(2007), pp.249-258.
- [21]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 부가시장 활성화 방안”, 2005.
- [22] 오환중, 윤영선, 이국용, “온라인 신뢰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1호(2006), pp.205-224.
- [23] 우지숙, 심은희, 최정민, “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지』, 제22권, 제2호(2008), pp.123-168.
- [24] 윤현옥,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위한 공청회”,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 CT NEWS, 2005.
- [25] 은혜정, 나은영, “인터넷에서 추구하는 충족(GS)과 획득된 충족(GO) 및 이용행동 간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제46권, 제3호(2002).
- [26] 이국용,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몰입에 관한 연구: 온라인 커뮤니티 신뢰, 태도, 몰입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18권, 제1호(2005), pp.119-142.
- [27] 이설영, “불법다운로드 피해, 얼마나 될까?”, 아이뉴스24, 2006.
- [28] 이원준, 박상철, “정보시스템 품질요인 관점에서의 인터넷 쇼핑 거래의도에 관한 연구: 신뢰와 만족의 인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영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 pp.405-412.
- [29] 이원호, 김창우, 김윤미, “지식 도둑 판치는 대한민국<하> 660만 명 본 영화도 DVD 판매는 고작 2억원”, 중앙일보, 2008.
- [30] 이원호, 이나리, 김창우, 김윤미, “지금도 불법 다운로드 중”, 중앙일보, 2008.
- [31] 이학식, “정서적 반응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제품소비경험과 관여도의 조절적 역할”, 『경영학연구』, 제21권, 제1호(1991), pp.345-367.
- [32] 이현정, 이수현, 김효근, “지식 기여자의 지식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국내 온라인

- 지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2007.
- [33] 이훈중, “P2P 방식에 의한 음악저작권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비교사법』, 제10권, 제4호(2003), pp.423-47.
- [34] 전영철, 정병용, “사회교환이론의 적용을 통한 관광개발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측정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제1권, 제1호(1999), pp.155-178.
- [35] 최동욱, 황준석, 김연배, 이종수,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불법파일 공유와 DRM의 영향분석”,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 2008.
- [36] 최성재,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노인문제”, 『사회복지학회지』, 제7권(1985), pp.147-165.
- [37] 최은정, “주된 역할정체, 태도와 자아표현: 자아조정과 상황을 매개변수로”, 『후기사회학대회 발표요약집』, (1922), pp.64-71.
- [38] Anti, J.H., “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Involvem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13(1984), pp.207-10.
- [39] Baston, C.D. and J.S. Coke, *Empathy: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for helping?*, In J.P. Rushton and R.M. Sorrentino(Eds), *Altruistic and helping behavior: Social, personality, and developmental pre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1.
- [40] Batson, C.D., *The Altruism Question: Toward a Social-Psychology Answer*, Hillsdale, NJ: Erlbaum, 1991.
- [41] Batson, T., “The ENFI project: A networked classroom approach to writing instruction,” *Acad Comput*, Vol.2, No.5(1988), pp.32-33.
- [42] Baumann, D.J., R.B. Cialdini, and D.T. Kendrick, “Altruism as hedonism: Helping and self-gratification as equivalent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0(1981), pp.1039-1046.
- [43] Baumeister, R.F., *The Self*, In D.T. Gilbert, S.T. Fiske, and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New York: McGraw-Hill, (1982), pp.680-740.
- [44] Blau, P.,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Wiley, 1964.
- [45] Boss, P.G., W.J. Doherty, R. La-Rossa, W.R. Schumm, and S.K. Steinmetz, *Sources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New York: Plenum, 1993.
- [46] Bryant, J., “Perfection, the Infinite Horizon and Dominance,” *Econo-*

- mics Letters*, Vol.10(1982), pp.223-229.
- [47] Bystrom, K.E., W. Barfie, and C. Hendrix, "A Conceptual Model of the Sense of Presence in Virtual Environments," *Presence*, Vol.8, No.2(1999), pp.241-44.
- [48] Calvert, S.L., B.A. Mahler, S.M. Zehnder, A. Jenkins, and M.S. Lee, "Gender differences in preadolescent children's online interactions: Symbolic modes of self-presentation and self-expression,"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4 (2003), pp.627-44.
- [49] Chiou, J.S., C.Y. Huang, and H.H. Lee, "The antecedents of music piracy attitudes and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57, No.2 (2005), pp.161-174.
- [50] Cialdini, R.B., M. Schaller, D. Houlihan, K. Arps, J. Fultz, and A.L. Beaman, "Empathy-based helping: Is it selflessly or selfishly motiv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1987), pp.749-58.
- [51] Comte, I.A., *System of positive policy*, London: Longman, Green and Co, 1851.
- [52] Cordell, V.V., N. Wongtada, and R.L. Kieschnick Jr., "Counterfeit Purchase Intentions: Role of Lawfulness Attitudes and Product Traits as Determinant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35, No.1(1996), pp.41-53.
- [53] Davis, M.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 10(1980), p.85.
- [54] Davis, M.H., "The effects of dispositional empathy on emotional reactions and help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Vol.51(1983), pp.167-84.
- [55] Delone, W.H. and E.R. Mclean, "Information System Success: the quest for the dependent variable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3, No.1(1992), pp.60-92.
- [56] Dhar, R. and K. Wertenbroch, "Consumer choice between hedonic and utilitarian good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37, No.1 (2000), pp.60-72.
- [57] Dowling, G.R. and R. Staeli, "A model of perceived risk and intended risk-handling activ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21(1994), pp.119-134.

- [58] Eisenberg, N. and J. Strayer, *Empathy and its developm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59] Eisenberg, N. and P.H. Mussen,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60] Eisenberg, N. and R.A. Faber,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Serieo Ed.) and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Vol.3(1998).
- [61] Eisenberg, N.,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behavior*,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6.
- [62] Eisenberg, N., C.L. Shea, G. Carlo, and G. Knight, "Empathy-related responding and cognition: A 'chicken and the egg' dilemma," In W. Kurtines and J. Gewirtz(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Research*, Hillsdale, NJ: Erlbaum, Vol.2(1991), pp.63-88.
- [63] Emler, N., "Differential involvement in dilinquency: toward an interpretation in terms of reputation management," in B.A. Maher and W.B. Maher(eds),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13(1984), New York: Academic Press.
- [64] Feshback, N.D., "Studies of empathic behavior in children,"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8(1978), pp.1-47.
- [65] Foa, U.G. and E.B. Foa, *Social structure of the mind*, Springfied, II: Charles C Thomas, 1974.
- [66] Fontaine, G., "The Experience of a Sense of Presence in Intercultural and International encounters,"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 Vol.1, No.4(1992), pp.482-490.
- [67] Gibbs, J.P.,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e*, New York: Elsevier, 1975.
- [68] Goffman, E.,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1959.
- [69] Gottfredson, M. and T. Hirschi, *A General Theory of Crime*, New York: Macmillan, 1990.
- [70] Gouldner, A.W., "The Norm of Reciprocity: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5(1960), pp.161-78.
- [71] Grasmick, H. and D.E. Green, "Legal Purnishment, Social Disapproval and Internalization as Inhibitors

- of Illegal Behavior,”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71(1980), pp.325-355.
- [72] Green, S.K., “Casual attribution of emotion and its relationship to role-taking and helping behavior(Doctoral dissertation, Loyola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University Microfilms, 1975.
- [73] Han, J.J., R.J. Zheng, and Y. Xu, “The Effect of Individual Needs, Trust and Identification in Explaining Participation Intentions in Virtual Communities,”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System Sciences*, 2007.
- [74] Hass, R.G., “Perspective taking and self-awareness: Drawing an E on you forehea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6 (1984), pp.788-798.
- [75] Heider, F.,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1958.
- [76] Hendricks, J., *Exchange Theory in Aging*, In G. Maddox(Eds.), *The Encyclopedia of Aging*(2nd eds.), New York: Springer, 1995.
- [77] Hendrix, C.M., “Exploratory Studies on the Sense of Presence in Virtual Environments as a Function of Visual and Auditory Display Parameters,” *University of Washington, Master of Science in Engineering*, 1994.
- [78] Hoffman, M.L.,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1(1975), pp.607-622.
- [79] Hoffman, M.L.,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Development: Empathy and Guilt,” *The Development of Social Behavior*, N. Eisenberg (Ed.), NY: Academic Pressm, 1982.
- [80] Hoffman, M.L.,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In C.E. Izard, J. Kagan, and R.B. Zajonc(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103-131.
- [81] Homans, G.C.,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Harcourt, New York, 1961.
- [82] Jarvenpaa, S.L. and N. Tractinsky, “Consumer trust in an Internet store: A Cross-cultural valid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5, No.2(1999), pp.1-35.
- [83] Johes, J.K., *Social Exchange Theory: Its Structure and Influence in So-*



- ci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Homans, G.(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Harcourt Brace Jovanovich, New York, 1976.
- [84] Kim, T. and F. Biocca, "Telepresence via television: Two dimensions of telepresence may have different connections to memory and persuas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3, No.2(1997), [<http://jcmc.indiana.edu/vol3/issue2/kim.html>].
- [85] Kim, T., "The memory and persuasion effects of presence in television advertisement proces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1996.
- [86] Lantagne, S.M., "The morality of Mp3s: the failure of the recording industry's plan of attack,"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18, No.1(2004), pp.269-273.
- [87] Leary, M.R. and R.M. Kowalski,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7, No.1(1990), pp.34-47.
- [88] Leary, M.R., *Self-Presentation: Impression Management and Interpersonal Behavior*,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5.
- [89] Liang, T.P. and H.J. Lai, "Effect of store design on consumer purchases: an empirical study of on-line bookstores,"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39(2002), pp.431-444.
- [90] Liang, T.P. and Y. Ku, *Diffusion of electronic stores*, Proceedings of the WITS, Charlotte, NC, 1999.
- [91] Lichtenstein, Bloch, and Black, "Correlates of Price Acceptabil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5, No.2(1998), pp.243-52.
- [92] Liu, C. and K.P. Arnett, "Explori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Web site success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Information Management*, Vol.38, No.4(2000), pp. 421-432.
- [93] Logan, C., "General Deterrence Effects of Imprisonment," *Social Forces*, Vol.51(1972), pp.64-73.
- [94] McGreevy, M.W., "The Presence of Field Geologists in Mars-like terrain,"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 Vol.1, No.4 (1992), pp.375-403.
- [95] McKnight, D.H., V. Choudhury, and C. Kacmar, "The Impact of Initial

- Consumer Trust on Intentions to Transact with a Web Site: A Trust Building Model,”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 Vol.11 (2002), pp.297-323.
- [96] Mehrabian, A. and N. Epstein,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Vol.40(1972), pp.525-543.
- [97] Michel, N.J., “Internet File Sharing: The Evidence so Far and What It Means for the Future,” *The Heritage Foundation working paper*, 2004.
- [98] Minsky, M., “Telepresence,” *Omni*, (1980), pp.45-51.
- [99] Morgan, S.E. and J.K. Miller, “Communicating about gifts of life: the effect of knowledge, attitudes, and altruism on behavior and behavioral intentions regarding organ donation,”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2002.
- [100] Mussen, P.H. and N. Eisenberg,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101] Nagin, D.S. and G. Pogarsky, “Integrating Celerity, Impulsivity, and Extralegal Sanction Threats into a Model of General Deterrence: Theory and Evidence,” *Criminology*, Vol.39(2001), pp.404-430.
- [102] Numally, J.C.,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78.
- [103] Organ, D.W., “The Motivational Basi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rganization Behavior*, Vol.12(1990).
- [104] Papacharissi, Z. and A. M. Rubin, “Predictors of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Vol.44(2000), pp.175-196.
- [105] Pogarsky, G., “Identifying Deterable Offenders: Implications for Research on Deterrence,” *Justice Quarterly*, Vol.19(2002), pp.431-453.
- [106] Preece, J., *Online communities: Designing Usability, Supporting Sociability*, Chichester, John Wiley and Sons, 2000.
- [107] Reno, R.R. and D.A. Kenny, “Effect of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on self-disclosure among unacquainted individuals: An application of the social relations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Vol.60(1992), pp.79-94.
- [108] Rheingold, H.,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

- tronic Frontier*, Reding, MA: Addison-Wesley, 1993.
- [109] Rice, R.E.,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37, No.4(1987), pp.65-94.
- [110] Roloff, M.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e Social Exchange Approach*, Beverly Hills, CA, Sage, 1981.
- [111] Schlenker, B.R., *Impression Management: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1980.
- [112] Schlenker, B.R., T.W. Britt, and J. Pennington, "Impressing Regulation and Management: Highlights of a Theory of Self-Identification," In R.M. Sorrentino and E.T. Higgins(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The Interpersonal Contex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Vol.3(1996), pp. 118-147.
- [113] Schlenker, B.R., T.W. Britt, J. Pennington, R. Murphy, and K.J. Doherty, "The Triangle Model of Responsibility," *Psychological Review*, Vol.101(1994), pp.632-652.
- [114] Sherman, L.W. and D.A., Smith, "Crime, Punishment, and Stake in Conformity: Legal and Informal Control of Domestic Viol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7(1992), pp.680-690.
- [115] Short, J.A., E. Williams, and B. Christie, *The social psychology of telecommunications*, London: John Wiley and Sons, Ltd, 1976.
- [116] Siegel, L. and S. Ness, "Egocentrism,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5, No.3(1979), pp.329-330.
- [117] Slater, M. and S. Wilbur, *Through the looking glass world of presence: A framework for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s*, In M. Slater (ED.), *FIVE Framework for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 OMW University of London, 1995.
- [118] Smith, A.D. and W.T. Rupp, "Knowledge workers' perceptions of performance ratings," *Journal of Workplace Learning*, Vol.16, No.3(2004), pp.146-66.
- [119] Smith, K.D., J.P. Keating, and E. Scotland, "Altruism reconsidered: The effect of denying feedback on a victim's status to empathic wit-

- 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1989), pp.641-650.
- [120] Smith, T.W., “Altruism in contemporary America: A report from the national altruism study,”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University of Chicago*, 2003.
- [121] Stotland, E., S.E. Sherman, and K. G. Shover, *Empathy and birth order*,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1.
- [122] Sullivan, H.S.,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1953.
- [123] Thibaut, J.W. and H.H. Kelley,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ley, 1959.
- [124] Tittle, C.R., “Crime Rates and Legal Sanctions,” *Social Problems*, Vol.16(1969), pp.409-423.
- [125] Tonn, B.E., P. Zambrano, and S. Moore, “Community networks or networked communitie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Vol.19, No.2(2001), pp.201-212.
- [126] Troth, M.A., *The Psychology Contract of Volunteer Workers and Its Consequences*, The University Arizona,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1999.
- [127] Turkle, S., “Virtuality and its discontents: Searching for community in cyberspace,” *American Prospect*, Vol.24(1996), pp.50-57.
- [128] Underwood, B. and B. Moore, *The generality of altruism in children*, In N. Eisenberg(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pp.25-52.
- [129] Voss, K., Spangenberg, E.R. and B. Grohmann, “Measuring Hedonic and Utilitarian Dimensions of Consumer Attitud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40(2003), pp. 310-20.
- [130] Walther, J.B.,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mpersonal, interpersonal and hyperpersonal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23(1996), pp.3-43.
- [131] Wang, Y., Yu, Q. and D.R. Fesenmaier, “Defining the virtual tourist community: implications for tourism marketing,” *Tourism Management*, Vol.23(2002), pp.407-417.
- [132] Wasko, M. and S. Faraj, “Why Should I Share? Examining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Contribution in Electronic Networks of

- Practice,” *MIS Quarterly*, Vol.29, No.1(2005), pp.35-57.
- [133] Wellman, B., “Computer networks as social networks,” *Science*, Vol. 293(2001), pp.2301-2304.
- [134] Wellman, B. and M. Gulia, *Net surfers don't ride alone: Virtual community as 'community,'* In B. Wellman(Ed.), *Networks in the global village*,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9), pp.331-367.
- [135] Williams, K.R. and R. Hawkins, “Perceptual Research on General Deterrence: A Critical Review,” *Law and Society Review*, Vol.20 (1986), pp.545-572.
- [136] Witmer, B.G. and M.J. Singer, “Measuring Presence in Virtual Environments: A Presence Questionnaire,”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Vol.7, No.3(1998), pp.225-240.
- [137] Zaichkowsky, J.L., “Measuring the Involvement Construc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2(1985), pp.341-352.
- [138] Zentner, A., “Measuring the effect of online music piracy on music sales,”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Economics*, 2003.
- [139] Zhou, Q., N. Eisenberg, S.H. Lo-soya, R.A. Fabes, M. Reiser, I.K. Guthrie, B.C. Murphy, A.J. Cumberland, and S.A. Shepard, “The relations of parental warmth and positive expressiveness to children's empathy-related responding and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Vol.73, No.3(2002), pp.893-915.
- [140] Zimring, F.E. and G. Hawkins, *Deterrence: The Legal Threat in Crime Contro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